

SK, 화학사업 매출액 54% 증가

5월 판매가격 상승으로 매출 확대 ... 윤활유 사업 매출 420억원

SK가 5월 석유사업 매출액이 8527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4% 증가했다고 밝혔다.

화학 사업 매출액은 3367억원으로 54%, 윤활유 사업은 420억원으로 42% 각각 증가했다.

SK는 석유 사업에서 계절적 요인으로 전체 물량은 감소했으나 국제유가 상승으로 판매단가가 상승하고 판매액도 증가했으며, 화학 사업 역시 에틸렌 가격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Aromatic, Polymer 제품의 판매량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.

<화학저널 2004/06/28>